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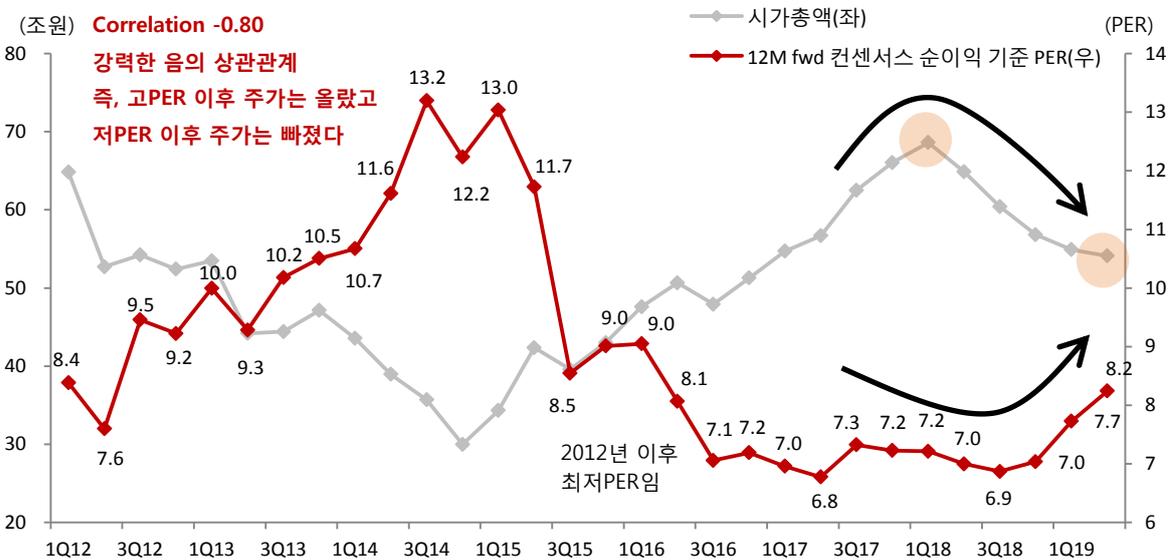


Analyst. 손 지 우 / 3773-8827, jwshon@sk.com

정유/화학, 지금이 바닥이라 할 수 있을까?

▶ 최근 주가하락에도 불구하고 PER이 상승하는 전형적인 화학 주가 패턴 나오는 증임. 분모가 되는 이익 추정치가 주가보다 더 빠르게 하락 중이기 때문임. 아직 이익추정치는 역사적으로 중간 수준에 머물러 있어 추가하락 가능

화학은 원래 저PER에 팔고 고PER에 사는 업종



자료 : Dataguidepro, SK증권
 주: 대상은 롯데, 한켐, 금석, 대한유화, SK, SK이노, S-Oil, GS

12개월 fwd 영업이익 지표는 아직 역사적 중단 수준임



자료 : Dataguidepro, SK증권
 주: 대상은 상기와 동일

• 작성자는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 •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 •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
 • 종목별 투자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.
 • 투자판단 3단계 (6개월 기준) 15%이상 → 매수 / -15%~15% → 중립 / -15%미만 → 매도

- 화학 주식투자의 오랜 격언인 “저PER에 팔고 고PER에 사라”는 내용은 수치로도 입증된다는 것을 이전부터 보여드려 왔습니다
- 그리고 간만에 update 해보니 지금도 이는 잘 지켜지고 있는데요. 최근 화학 주가는 계속 빠졌는데, 놀랍게도 PER은 오른 양상입니다
- 주가가 빠졌는데 PER이 올랐다? 이상하게 들리실 수 있지만, 당연합니다. 시장 컨센서스라 불리는 애널리스트들의 이익추정치, 즉 분모가 되는 EPS가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
- 그러면 이익 추정치가 다 하락했을까요? 역사적으로 봐도 아닌 듯 싶습니다. 주요 화학업종의 12개월 fwd 영업이익추치를 받아보니 아직 역사적으로 중단 수준에 머물러 있네요. 이는 곧 주가 역시 더 하락할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
- 특히 화학보다 정유가 많이 안 빠진 양상입니다. 즉 정유의 추정치 하락이 더 가능성 높아 보이는데, 주가도 그만큼 부담이겠조

